

# 광주시, 유엔과 세계인권도시포럼 공동 주최

### 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유네스코와 공동주최 합이서 체결 이용섭 시장 제안에 유엔 화답... 10월 포럼서 각종 프로그램 운영

광주시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UN OHCHR),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가 오는 10월 개최 예정인 제10회 세계인권도시포럼을 공동 주최한다. 이용섭 시장 제안에 유엔이 받아들인 것이다.

광주시는 "제10회 세계인권 도시 포럼을 유엔 인권 최고 대표사무소(UN OHCHR),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와 함께 주최하기로 하고, 양 기구와 공동 주최 합이서를 각각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세계인의 인권 증진과 연대를 위해 활동

하는 유엔 대표 인권기구와 동행은 광주가 민주·인권·평화 도시로 인정받았다는 방증이라고 광주시는 의미를 부여했다.

그동안 포럼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시 교육청,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등 국내 기관이 참여해왔다. 유엔 인권 최고 대표사무소는 전체 회의, 인권 도시 시장단 회의, 국제 인권교육센터 워크숍 등을 운영하게 된다.

칠레 대통령을 두 번 역임한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 최고 대표사무소 대표는 코로나19로 한국 방문이 여의치 않아 홀로그램을 통해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오드리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영상으로 환영사를 하고 '포용 및 지속 가능한 도시 국제연합(ICCAR)' 운영위원 회의와 아시아-태평양지역 차별반대도시연합(APCAD) 워크숍 등을 화상회의를 통해 운영한다.

공동 주최는 이용섭 시장이 지난해 6월 유엔 인권 최고 대표사무소가 주최한 국제인권회의에 초청받아 제네바를 방문했을 때 첫발을 댄다.

당시 이용섭 시장은 포럼의 국제적 위상 강화를 위해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 최고 대표사무소 대표에게 포럼을 공동주최하고 직접 참석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어 지난해 9월 유네스코로부터 '아시아-태평양지역 차별반대도시연합(APCAD)' 의장도시를 제안 받고 수락

한 것을 계기로 유네스코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공동주최기관 참여라는 결실을 이끌어 냈다. 이용섭 시장은 "유엔 인권기구의 양대 축인 두 기관과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민주·인권·평화도시 광주가 이번 포럼을 공동주최하게 돼 더욱 의미가 크다"면서 "세계인권도시포럼을 더욱 발전시켜 5-18 광주정신을 전 세계에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올해 세계인권도시포럼은 10월7일부터 10일까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지역과 공동체-인권도시의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다.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최첨단 화상회의 기술 등을 이용해 38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광주시 공식 유튜브 등 여러 SNS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5·18 검열 신문기사·투사회보 등 전시

### 전일빌딩 245서 5·18 아카이브전 오늘부터 10월 4일까지 개최

5·18 민주화운동기록관은 10일부터 오는 10월4일까지 전일빌딩245 9층의 '5·18기억공간' 기획전실에서 아카이브전 '묻고 묻는다'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전시에서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취재기자들의 모습, 검열됐던 신문기사, 언론인 사적서, 시민들이 제작한 '투사회보' 등이 선보인다.

광주시민들이 직접 당시 광주 소식을

전한 투사회보를 통해 5·18민주화운동을 위한 시민들의 열정을 되돌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용화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은 "이번 아카이브전을 통해 광주시민들이 지켜내고자 했던 진실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일빌딩 3층 '5·18과 언론', 9층·10층 '5·18기억공간'은 5·18민주화운동 기록관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다. 매일 5차례(오전 11시, 오후 1시, 오후 2시30분, 오후 4시, 오후 5시30분) 정기해설도 진행되고 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광주 시민참여 예산사업 온라인 투표로 선정

### 시정참여형사업 31개 대상

광주시는 내년도 시민참여 예산사업 중 시정참여형 사업을 시민 온라인 투표로 선정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시민 온라인 투표는 그동안 시민참여 예산위원으로 한정된 시민참여예산사업 선정 권한을 일반 시민까지로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시민 온라인 투표는 10월 오전 10시부터 28일 오후 6시까지 일반시민 누구나 컴퓨터나 모바일로 '광주광역시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 접속해 팝업창에서 본인인증을 한 후 시정참여형 31개 사업 중 3개 사업을 선택하면 된다.

시정참여형 사업은 복지건강, 환경생

태, 도시재생, 교통건설, 문화관광체육, 일자리경제, 일반행정 분야다. 온라인투표 결과 50%와 3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2021년도 시민참여예산사업 선정' 총회의 위원 투표 결과 50%를 합산해 최종 선정된다.

한편, 광주시는 '2021년도 시민참여예산사업 선정 총회'에 2021년도 시민참여예산사업으로 ▲시정참여형사업 31건(99억 4400만원) ▲시정형치형사업 1건(15억원) ▲지역참여형사업 36건(15억5500만원) 등 총 68건, 130억원을 상정한 후 120억원 규모로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시정참여형과 지역참여형 사업은 총회 승인으로 최종 선정된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남도여행·무안공항 활성화 전남도, 사진·영상 공모전

### 오늘부터 다음달 7일까지 접수

전남도는 제주항공과 공동으로 전남의 바다와 섬 여행을 즐길 일상을 주제로 '남도여행 및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공모전'을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공모전은 여행지에서 경험한 일상 사진과 참신한 아이디어로 제작된 영상 콘텐츠 등을 통해 전남에 대한 관심을 이끌고 여행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는 10일부터 9월 7일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신청은 제주항공 누리집(www.jejuair.net)으로 하면 된다.

공모 접수순으로 총 280명에게 무안-제주 왕복항공권을 1매씩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작품 선정은 전문가가 포함된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결정되며, 대상, 최우수상 등 우수작 11점을 선정해 총 7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할 방침이다.

특히 수상자들이 제작한 사진과 영상은 '남도여행 길잡이' 누리집을 비롯 남도관광 SNS(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제주항공 SNS 채널 등으로 전국에 홍보될 예정이다.

박철원 전남도 도로교통과장은 "이번 공모전은 전라남도 아름다운 여행지와 무안국제공항을 전국에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참신한 작품이 많이 접수돼 전남지역 관광 명소를 많은 분들이 알고 찾아올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와 (재)남도장학회가 지난 7일 나주 빛가람호텔에서 개최한 '대학선배! 멘토링' 행사에 참석한 남도학속 대학생과 지역 고교생 등 50여명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새천년인재육성프로젝트 일환으로 마련한 이날 행사에서 남도학속 대학생들이 전남지역 고교생들에게 입시 노하우와 대학생생활 요령을 알려줬다. <전남도 제공>

# 전남도, 멘토·멘티 결연 '대학선배! 멘토링' 개최

### 남도학속 대학생-고교생 연결 입시 노하우·대학생활 전수

전남도(재)남도장학회는 지난 7일 새천년인재육성프로젝트 일환으로 남도학속 대학생과 지역 고교생 50명이 함께한 '대학선배! 멘토링'을 개최했다.

나주 빛가람호텔에서 가진 이번 행사는 전남지역 고교생들에게 남도학속 대학생들의 입시 노하우와 대학생생활 요령을 전수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당초 80명(남도학속 40명, 지역고교생 40명)이던 규모

를 50명으로 축소하고 3일 과정을 1일로 줄였다. 교육생들의 안전을 위해 권역별 버스 지원을 비롯 행사장 입구 열화상 카메라 설치와 수시 발열체크, 마스크 의무 착용, 좌석 2m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을 준수해 진행했다.

행사는 감창연 한밭대 교수의 '성공적인 멘토링' 강연을 시작으로, 김태원 구글 코리아 상무의 '4차 산업혁명', 남윤곤 메가스터디 소장의 '유형별 대학입시 준비 방법' 등 알찬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참여 고교생은 물론 남도학속 대학생들도 크게 만족했다.

전남도는 인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

고 멘토와 멘티간 개별적인 만남을 적극 유도하는 등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고미경 전남도 희망인재육성과장은 "멘티는 물론 멘토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번 멘토링 행사를 마련했다"며 "하루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인연으로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는 '지역과 함께 꿈꾸고 성장하는 으뜸인재육성'을 목표로 민선7기 브랜드 사책인 새천년 인재육성 프로젝트 3개 분야 12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유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시민이 제안하면 광주시 정책이 된다

### '바로소통 광주' 플랫폼 활발 시민 제안 876여건 돌파

시민 누구나 광주를 위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안하고 토론해 정책화하는 '바로소통 광주'가 대한민국 대표 온라인 시민참여 민주주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광주광역시가 시민과 행정의 양방향 소통을 원활히 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지난 2019년 3월 시 홈페이지에 바로소통 광주 플랫폼을 구축한 뒤 현재까지 시민제안 건수 876건에 방문자는 21만명(1일 420여명)을 기록했다.

특히 공감과 토론과정을 거쳐 8건이 정책화되는 등 시민은 정책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행정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양방향 소통으로 시민참여민주주의 시대를 활짝 열어가고 있다.

바로소통 광주는 제안→공감→토론→검토→실행방안→정책화라는 6단계를 통

해 진행된다.

시민들은 시 홈페이지나 SNS 등에서 바로소통 광주 플랫폼으로 접속해 광주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과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안된 의견은 곧바로 플랫폼에 '진행 중인 제안'으로 등록이 되며, 이곳에서 30일 안에 50건의 시민 공감을 얻으면 토론으로 넘어간다. 시민 누구나 토론 중인 제안에 의견을 댓글로 남길 수 있고, 찬성·반대·중립 등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

토론 기간 동안 100명 이상이 참여한 제안은 부서·분과위 검토를 거쳐 시민권익위원회 심의를 넘어가고, 최종적으로 실행여부를 결정해 채택된 제안은 시민권익위원회가 광주시에 정책권고하면 광주시에서 실행계획을 수립해 정책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같은 과정을 통해 정책화된 제안은 총 8건이며, 현재 시민권익위 심의 중인 제안은 14건이다. /박진표 기자 lucky@

##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12차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